



KIA 박찬호 “내가 훔친건 타이밍”



올 시즌 도루 36개 1위 질주...2위보다 9개 앞서
김일권·이순철·이종범·김종국·이용규 이어 팀 도루왕 계보
“40 도루는 해야 안정권...가장 까다로운 투수는 차우찬”

KIA 타이거즈의 박찬호가 대도(大盜) 계보를 잇는다. '호랑이 군단'은 알아주는 도루의 팀이다. 팀 통산 도루 1위 기록을 착실하게 경신하고 있고, 앞서 13차례나 도루왕을 배출했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부터 3년 연속 도루왕에 오른 김일권을 시작으로 서정환(1986년), 이순철(1988·1991·1992년), 이종범(1994·1996·1997·2003년), 김종국(2002년), 이용규(2012년)가 도루왕에 등극했다.

역대 한 시즌 최다 도루 기록도 타이거즈가 지고 있다. 이종범이 1994시즌에 무려 84차례나 베이스를 훔쳤고, 이는 앞으로 KBO리그에서 가장 깨지기 힘든 기록 중 하나로 꼽힌다. 리그에서도 알아주는 빠른 발 이대형도 2014시즌 타이거즈 통산 도루 기록에 22개를 더해줬고, 김주찬은 KIA 유니폼을 입은 2013년 23개에 이어 2014년 22개 도루로 9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2019시즌에는 생각지 못했던 박찬호가 뛰고

있다. 박찬호는 지난 4일 한화전에서 36번째 도루에 성공하며 1위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공동 2위인 고종욱(SK), 김하성(키움)의 27개보다 9개가 많다. 박찬호는 시즌 내내 '40도루'를 이야기하며 달려왔다. '40'은 박찬호가 예상한 1위 안정권 수치다. 앞서 지난 4년 도루왕은 삼성 박해민의 독차지였다. 하지만 2015시즌 60개를 시작으로 52-42-36개로 점점 개수가 줄었다. 최근 감소세를 고려해 박찬호는 40도루를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그의 계산대로 도루왕 레이스가 진행되는 모양새다. 박찬호는 앞선 타이거즈 도루왕들과는 조금 모습이 다르다. 스스로 "나는 빠른 선수가 아니다"고 말할 정도로 박찬호는 엄청난 스피드로 승

부하는 유형은 아니다. 박찬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스타트와 타이밍이다. 상대 투수 스타일을 잘 분석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스타트를 끊고, 넉넉하게 세이프 판정을 받고 있다. 올 시즌 박찬호의 도루 성공률은 87.8%(도루 실패 5)에 이른다. 박찬호는 "요즘 포수들이 너무 좋아서 달리기만으로는 땀 수 없다"며 "우사인 볼트가 뛰어도 시간상으로 정타임으로 뛰면 다 죽을 것이다"고 웃었다. 그의 뒤에는 '도루왕 출신' 김종국 코치의 노하우와 격려도 있다. 박찬호는 "계속 코치님이 떠먹여주신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코치님하고 상대 투수 분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노력과 고민에도 박찬호의 발을 묶는 투수는 있다. LG 좌완 차우찬은 박찬호가 짚는 가

장 까다로운 투수다. 올 시즌 공인구 반발 계수 조정으로 '한 루'가 더 중요해진 만큼 박찬호의 도루 값어치는 높다. 타선 침체로 고전하던 KIA의 득점 공식 중 하나가 '박찬호의 출루와 도루'다. 박찬호는 상대 배터리를 흔들며 타자와의 승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변화구 구사에 제약을 두게 하면서 득점에 기여하고 있다. 실패와 부상이라는 위험요소까지 감안하고 뛰어야 하는 만큼 박찬호의 질주가 더 빛난다. 박찬호는 "연봉 고과 비중이 낮고 부상 위험도 있어서 점점 리그 도루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나 같은 애들이 뛰어야 한다. 그래야 팀이 강해지는 것이다"며 "타격이 부족한 만큼 도루로 역할을 하겠다. 꼭 도루왕에 오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안 풀린다, 안 풀려~”

류현진, 3경기 연속 5회 이전 강판...방어율 2.45로 상승

콜로라도전 4.1이닝 3실점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네 번째 도전에서도 시즌 13승을 올리지도, 평균자책점을 낮추지도 못했다. 류현진은 5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4.1이닝 동안 안타 6개와 볼넷 4개를 허용하고 3실점 했다. 류현진이 한 경기에서 볼넷 4개 이상을 준 건 올해 처음이다. 지난해 4월 3일 애리조나전에서 볼넷 5개를 허용한 이래 최다 볼넷이다. 류현진은 7-3으로 앞선 5회초 1사 1·2루에서 애

덤 콜라렉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팀은 7-3으로 승리했다. 타선의 넉넉한 지원에도 아웃 카운트 2개를 못 잡아 승리 투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류현진은 8월 24일 뉴욕 양키스(4.1이닝 7실점), 8월 30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4.2이닝 7실점)전에 이어 3경기 연속 5회를 넘기지 못했다. 평균자책점은 2.35에서 2.45로 또 상승했다. 류현진은 큰 위기 없이 3회까지 무실점으로 던졌다. 5회 1사 후 찰리 블랙먼에게 좌전 안타를 내준 뒤 에레나도에게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에 이어 곧바로 이언 데스먼드에게 우전 안타를 맞아 3점째를 줬다. 그러자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지체 없이 류현진에게서 공을 뺏았다. /연합뉴스



류현진

아시아엔 넘사벽 '세계 농구'

농구 월드컵 조별리그, 亞 출전 6개국 모두 탈락

2019 국제농구연맹(FIBA) 농구 월드컵 조별리그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아시아농구는 또 한 번 좌절을 맛봤다. 역대 최다인 32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 지역은 총 6개 나라가 출전했다. 개최국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필리핀, 이란, 요르단이 경쟁에 나섰다. 각 조에서 2위 안에 들어 상위 라운드에 진출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한국과 필리핀, 이란은 3패로 각 조 최하위가 됐다. 일본과 요르단은 다음 라운드 진출이 무산됐다. 아시아국가 중 유일하게 1승을 따냈던 중국 역시 5일 베네수엘라에 59-72로 무기력하게 패했다. 중국은 이번 대회에 미국프로농구(NBA)에서 뛰었던 이젠렌을 비롯해 저우치, 귀아이룬 등 간판들을 모두 출전시켰다. 그러나 경기력은 기대 이하였다. 베네수엘라전마저 패하며 중국은 안방에서 열린 축제에서 들러리로 전락했다. 한국도 3패로 조별리그를 마감했다. 유럽의 강호 아르헨티나, 러시아를 만나 세계의 높은 벽을 절감했다. 나이지리아전에서는 42점 차 대패를 당했다. 귀화선수 라건아가 골 밑을 지켰지만, 초반 3경기 결과는 참담했다.

기대를 받았던 일본 역시 유럽의 강호 터키와 체코를 만나 분전했으나 두 경기 모두 10점 차이상의 패배를 떠안았다. 2019 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9순위로 워싱턴 워저즈에 지명된 하치무라 루이는 2경기에서 평균 18점에 6.5리바운드를 올리며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강호들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FIBA 랭킹이 아시아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27위인 이란 역시 3패로 순위결정전으로 내려왔다. 필리핀과 요르단 역시 좋지 못한 경기력으로 조별리그에서 고배를 마셨다. 아시아는 농구 월드컵에서 '언더독'을 벗어나지 못했다. 1954년 브라질 대회에서 필리핀이 3위에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 3개 대회를 돌아봐도 아시아는 매번 8강 이하에 머물렀다. '이번엔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2019 월드컵에서도 아시아는 '농구 변방'의 이미지를 벗지 못했다.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아시아 6개국은 6일 시작하는 순위결정전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진출권을 따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다.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아시아국가는 도쿄올림픽 분선행 티켓을 얻는다. /연합뉴스

여름 야외 경기장 미세 물분자 살포해 온도 저감

문광부, 이달말부터 적용
이달 말부터 프로야구 관중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5일 "미세먼지와 폭염에 대응하고 쾌적한 실외 프로스포츠 관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 고척스카이돔을 제외한

전국 프로야구 경기장 8개소에 '미세 물분자 살포 장치(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를 지원했다"며 "이 장치는 이달 말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미세 물분자 살포 장치는 20마이크론(μm, 0.02mm) 이하의 인공안개를 만들어 분무하는 장치다. 인공 안개가 공기 중의 분진과 열을 흡수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 /연합뉴스